

# **마약에 대한 원불교 입장**

## 목 차

<b>마약에 대한 원불고 입장</b> .....	<b>33면</b>
<b>1. 마약류란?</b> .....	<b>33면</b>
<b>2. 마약류의 개요 및 해독 내용은?</b> .....	<b>33면</b>
<b>3. 현재 마약류 남용의 추세는?</b> .....	<b>33면</b>
<b>4. 마약류사범 급증 원인은?</b> .....	<b>34면</b>
<b>5. 외국의 마약 문제 실태는?</b> .....	<b>35면</b>
<b>6. 마약류 남용에 관한 처벌법은?</b> .....	<b>35면</b>
<b>7. 마약류 관계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b> .....	<b>35면</b>

## **마약에 대한 원불교 입장은?**

마약류 남용은 사람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며 사회에 무서운 죄악을 짓게 됩니다.

- 1) 사람의 정신은 원래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마약으로 인해 그 정신이 쇠약하게 되고, 쇠약한 그 정신이 마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사람이 도리어 저 마약의 노예 생활을 면하게될 뿐 아니라 사회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 2)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향락주의의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빚어진 마약류 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병든 사회를 치료함으로써 마약없는 건전한 세상을 건설해야 합니다.

### **1. 마약류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고 중독과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의미).

### **2. 마약류의 개요 및 해독 내용은?**

### **3. 현재 마약류 남용의 추세는?**

1950,60년대의 아편, 헤로인, 70년대의 대마초를 거쳐 80년대에는 히로뽕이 마약류 사범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1) 1957년 : 1954년에 5만명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했었지만 마약법 제정 이후의 단속으로 아편남용은 거의 근절
- 2) 1960년대 : 헤로인, 코카인

3) 1970년대 : 1975년 대마초 흡인 사범은 1,460명에 이른 적도 있었으나 대마 관리법 제정 이후 강력한 단속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

4) 1980년대 : 마약문제

① 히로뽕 남용자의 급증

보사부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전국의 히로뽕 사용자 수를 10만명 혹은 1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검 마약과에서는 1989년의 특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상용자를 약 38만명 혹은 4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이대로 방치될 경우 1993년경에는 마약류 상용자의 수가 1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사용계층의 확산

청소년층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경향

③ 히로뽕 관계 범죄의 급증과 재범률의 증가

④ 히로뽕 공급사범의 악질화, 조직화, 국제화.

⑤ 코카인의 등장

## 4. 마약사범의 급증 원인은 ?

### 1) 개인적 측면

① 심리적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사회적 좌절감등을 마약으로 해결하려는 현실도피적 태도나 향락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그릇된 윤리관

② 주위 동료들의 유혹과 강요, 머리가 맑아진다거나 힘이 세어진다는 등의 그릇된 인식등의 지적. 특히 최근 판매란에 허덕이는 히로뽕 밀매 조직들은 히로뽕을 잡개는 약, 피로회복제, 성적 쾌락을 높이는 약, 살 빠지는 약등으로 허위 선전하고 있으며 이에 현혹되어 히로뽕에 빠져드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

### 2) 사회환경적 측면

① 양적 성장 제1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 물질문명의 발달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항락, 퇴폐풍조의 사회환경을 조성.

## 5. 외국의 마약문제 실태는?

- 1) 일본 : 2차 대전 직후부터 50년대에 걸쳐 제1차 히로뽕 남용기.  
1980년대에 들어서 매년 검거인원만 2만명을 넘어서는 제2의 히로뽕 남용시기.
- 2) 미국 : 세계에서 약물 남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1989년 현재 2,300만명의 인구가 습관적으로 약물을 남용하고 있으며 그 중 10-20%는 매일 약물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은 마리화나, 헤로인, 코카인등이다.
- 3) 홍콩 : 국제적 중개도시로서 마약종거래와 남용에 아주 취약한 환경이다. 이에따라 마약류 사법도 1976년의 경우 12,55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마약류제조, 거래등 공급사범이 3,129명, 아편남용 사범이 2,684명, 헤로인 사범이 6,620명, 기타 약물 사용이 123명 등에 이르고 있다.
- 4) 싱가포르 : 마약류사범은 “약물남용법”에 의해 밀수, 밀조, 밀매의 경우 최고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그간 실제로 10여명이 사형집행 되는등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 6. 마약류 남용에 관한 처벌법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대마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 7. 마약류 관계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

1989년 우리나라 마약사범계수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비율 ) 는 9.2로 일본 18.7, 프랑스 55.9, 스페인 65.8, 태국 98.1, 미국 328.2등에 비해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은 증가추세가 계속 된다면 머지않아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1) 종합 대책의 수립

예방, 단속, 치료, 사회복귀 등에 걸친 마약류관계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정책수행을 감독,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의 중앙 기강의 중앙기강의 수립이 시급한 것이다.

## 2) 단속강화를 통한 공급억제

- ① 철저하고 효율적인 단속, 수사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 ② 마약수사인력 확충과 전문 수사인원의 양성이 요청된다.
- ③ 밀수되고 있는 히로뽕 원료의 국내반입을 막기위해 항만, 공항의 검객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장비의 현대화가 요청된다.
- ④ 마약류 밀수, 밀조, 밀매사범의 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
- ⑤ 현재 보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남용 약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

## 3) 예방교육과 치료를 통한 수요억제

- ① 일반국민에의 마약류 확산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계몽, 교육의 예방 활동이 선행 되어야 한다.
- ② 마약류 사범의 치료대책이 필요하다.  
마약남용자는 불법 마약류 사용자로서 범법자인 동시에 약물 중독자로서 처벌에 앞서 치료가 선행 되어야 한다.

## 4) 사후관리와 사회복귀 대책

- ① 현행 사회보호법 8조에 의하면 마약 중독자로서 禁錮이상의 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치료 및 사후관리 기간동안 근로의식 고취와 직업 알선을 통해 사회복귀를 돋는 방안 모색

별첨

**<표1> 남용약물의 구분**

구 분	신체적 증상 및 행동	해 둑
마 약(1)	증추신경 억제로 인한 행복감과 도취감, 신체조정상실, 동공축소, 눈물, 콧물, 오한, 발한, 식욕감퇴, 졸리움, 수면, 멍청함, 체중 감소	정신적의존(정신적으로 갈망 : 습관성), 신체적의존(신체적으로 갈망 :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감염, 농양, 파상풍, 간염, 호흡마비, 사망(과량사용시)
마 약(2)	홍분, 동공산대, 불안, 초조, 진전(손떨림), 미약한 환각	강한 정신적의존, 정신혼돈, 현기증, 감정억제, 경련, 사망(과량사용시)
환각제(1)	용량과 개인에 따라 다양함, 불안, 초조, 도취감, 감정억제, 동공산대, 착각, 망상, 환각, 지각강화, 지각왜곡, 오심, 구토, 예측불허한 행동, 공황 또는 공포성 정신병적 반응	신체적의존은 없으며 정신적의존 잠재, 성과내성이 있다. 정신이상 및 영구 정신이상 기능, 예측불허한 행위, 제재가 어려운 위험한 행동, 자살, 살해, 풀리쉬 베현상
환각제(2)	부여방법에 따라 효능 다양, 안구충혈, 구강건조, 다변(말이 많음), 소행(웃음), 도취감, 약한환각, 시간과 공간의 왜곡, 과장된 지각	정신의존 가능성이 있으며 내성과 신체적의존은 없다. 공간왜곡에 의한 사고
홍분제 (각성제)	동공산대, 식욕상실, 홍분, 다변, 진전홍분성, 코, 입술, 구강의 건조, 호흡곤란, 파로, 피로, 불면증, 다량 정맥주사시 망상, 적개심, 공격적 행위, 환각, 공황증, 편집증	고혈압, 심장마비, 뇌손상 가능성, 영양장애, 극도의 피로, 폐렴, 강한 정신적의존 및 신체적의존, 내성, 부주의한 행위, 혼수, 사망(과량사용시)
억제제 (진정제, 수면제)	동공축소, 취한행동, 말더듬, 사고산만, 억제, 졸리움, 멍청함, 과량사용시 무의식, 혼수, 호흡마비로 사망	정신적의존, 신체적의존, 오판과 조정력 상실에 의한 위험, 금단증상, 신장장애, 뇌손상, 간장장애, 과량사용시 사망(술에 함께 복용시 상승작용)
신경안정제	증추신경억제제와 유사함, 평온, 졸거움과 안녕감, 발한, 감정억제, 정신적침체, 배뇨장애, 노여움, 긴장, 불안, 정신적홍분, 언어장애	억제제와 유사(그러나 보다 약함), 정신적 신체적의존, 술, 마약, 수면제와, 겸용시 상승효과, 시각장애, 현기증, 졸리움, 단증상(홍분, 오심, 감정억제, 경련 등)
휴입제 (본드)	술과 유상합, 동공축소, 혼수, 언어장애, 현기증, 도취감, 시각과 청각 왜곡, 환각 작용이 있다고도 함, 콧물, 눈물, 침, 근조절장애, 취한 행동, 성냄, 홍분, 졸리움, 무의식	정신적의존, 판단장애로오는 위험, 공격적 행위, 반사회적 행동, 간장장애, 심장장애, 골수장애, 영구적 뇌손상 가능, 식욕감퇴, 체중 저하, 사망

